



'A4'에 의미가 있다고요?

복사용지의 대명사로 쓰이는 A4. 이 A4규격은 어디에서 시작됐으며, 만약 종이에 표준 규격이 없었다면 어땠을까?

월말 영업보고서 작성과 회의 준비에 정신없이 바쁜 표 대리 팀.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, 전화 벨 울리는 소리, 통화하는 소리, 인쇄기,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모두들 분주히 움직인다. 이렇게 한창 바쁜 오후 시간, 디자인 팀의 고 대리가 들어와 인사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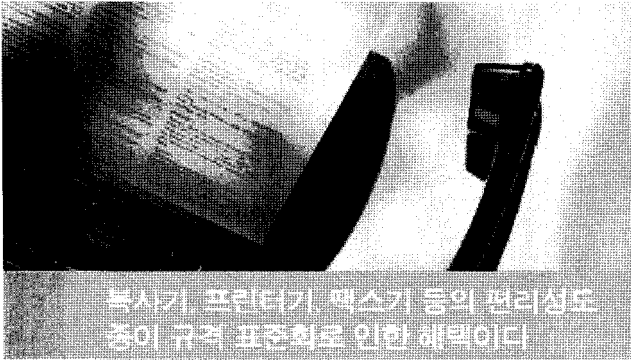
"안녕하세요? 송 과장님, 표 대리님, 어휴 다들 바쁘시네요. 저, 지난주에 드렸던 신제품 디자인 시안에 대한 반응조사 건으러 왔는데..." 고 대리의 말에 송 과장, 표 대리를 쳐다보며 말한다. "아, 그 시안, 내가 받아서 표 대리한테 줬던가? 하 주임한테 줬던가? 팀장님께 보여드리고 팀원들에게 돌리라고 했던 거 말이야." "글쎄요, 그게 제 자리엔 없는데요..., 사실 전 본 기억도 없는데..., 어떻게 생긴 거죠? 두꺼운 서류인가요? 차 대리가 알겠죠." 라며 은근슬쩍 넘어가는 표 대리.

그러나 차 대리도, 김 주임도, 막내 예 민혜까지 그 시안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. 난감한 표정으로 사무실 중앙에 선 디자인 팀 고 대리가 팔짱을 끼더니 이내 곧 오른 손 검지로 턱을 괴이며 말한다. "어떻게 하드보드에 붙인 A2 크기의 디자인 시안을 다들 못 찾으실 수 있어요? 다른 팀들은 이미 다 반납하고 반응조사표까지 주셨는데, 영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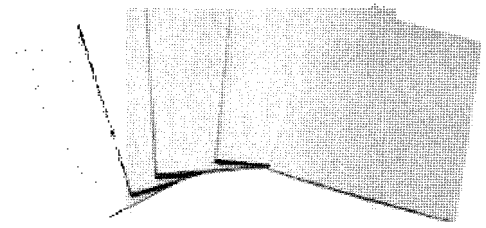
1팀 것만 없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찾으러 왔습니다만..."

떠들썩한 분위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자리에서 나온 팀장이 상황 설명을 듣고는, "그건 내가 하 주임에게 지시한 건데, 팀원들 반응 다 받아서 조사표에 표시하고 디자인 팀에 넘기라고..., 이 친구가 그걸 안 하고서 출장을 갔군." 이라며 예 민혜에게 하 주임 자리를 찾아보란다. "아~ 이건가요? 이 커다란 보드." 예 민혜가 검은 색 보드에 붙여진 디자인 시안을 찾아 들어 보였다. "그런데 이게 A2 사이즈 인거예요? A4의 네 배는 되어 보이는데..." 예 민혜의 말에 디자인 팀 고 대리가 대답을 한다. "네, 그게 맞네요. 그게 A2 사이즈 용지 맞고요. 보드 뒷면에 조사표가 붙어있어요. 그 두 가지 시안 중 맘에 드는 시안에 투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. 사내 반응 조사 차원에서요."





복사기, 프린터기, 팩스기 등의 편리성도 종이 규격 표준화로 인한 혜택이다



고 대리의 발에 팀장이 팀원들을 모두 불러 모은다.

"다들 바쁜 와중에, 잠시만 이쪽 테이블로 좀 와 봐요." 팀원들 모두 잠시 모여 신제품 디자인 시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.

잠시 후, 예 민혜가 고 대리에게 질문을 한다. "그런데, 고 대리님, 디자인 팀에선 이렇게 큰 종이에도 컬러 출력이 되나 봐요?"

"네, 우린 디자인전용 컬러인쇄기를 쓰니까, A4부터 A1까지 출력이 다 되요. A1 용지를 쓸 일은 거의 없지만요." 고 대리의 대답에 표 대리가 묻는다.

"A1이라고? 그건 얼마나 큰 종인데? 이 A1라는 게, 세계적으로 공통된 규격이지? 외국에서 들어온 걸 테고. 그런데, 이건 누가 제일 먼저 만들어 낸 거야? 고 대리는 혹시 알아?"

"맞아. 그러고 보니,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종이에 규격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흥미롭군. 매일 A4용지 몇 장 분량이라고 입에 달고 살면서 말이야."

팀장도 맞장구친다.

이에 대해 디자인 팀 고 대리가 웃으며 설명하기 시작한다.

"종이 규격은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쓰는 표준 규격이죠. 그래야 당연히 혼동이 없겠고요. 제가 알기론, 이 A4니, A3니 하는 규격은 독일에서 만들어졌답니다.

독일 공업규격위원회에서 큰 종이를 잘라 작은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요, 반으로 잘라도 가로, 세로 비율이 똑같이 유지되게 했대요. 그래서 종이 낭비를 최소화 한 크기를 제안한 거라네요."

그는 A2용지 시안을 들어 보이며 계속했다.

"종이규격은 약 1제곱미터짜리 A열이랑, 약 1.5제곱미터짜리 B열이 있어요. 지금 보시는 이 용지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A2인데요, 여기서 2라는 건 1제곱미터짜리 A열 용지를 두 번 반으로 잘랐다는 뜻이죠. 이렇게 반 자르기를 4번 한 것이 우리가 매일 쓰는 A1 용지가 된 겁니다. B열도 마찬가지로요. 종이 크기만 다를 뿐.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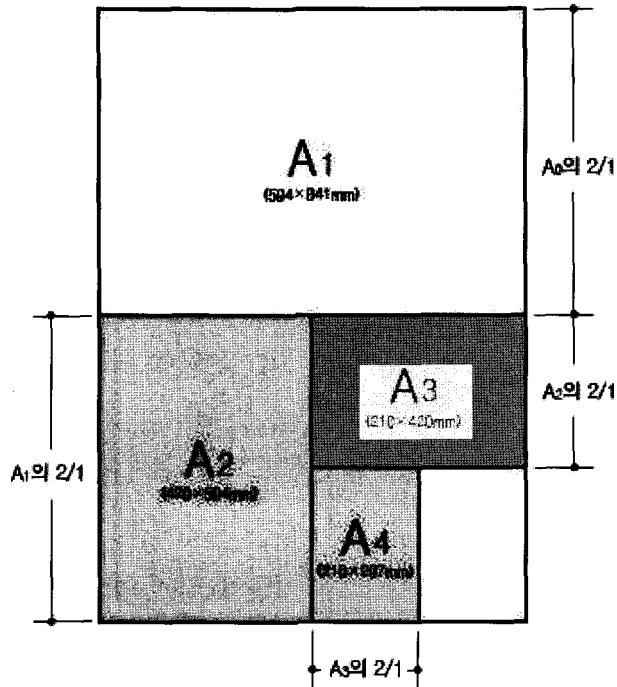
"아~ 알고 보니 간단하네요. A1는 A열 용지를 4번 반으로 자른 것, 그럼 B4는 B열 용지를 4번 반으로 자른 것. 맞죠? 이렇게 세계 표준규격이 통일돼있어서 전 세계가 다 같은 복사용지를 쓸 수 있는 거군요? 프린터나 팩스 같은 기계도 그렇고, 모든 업무를 전산화 하는 데, 이 종이 규격도 참 중요한 요소였을 것 같아요." 예 민혜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한다.

[표준 TIP]

A4 용지의 탄생배경과 그 형제들

현재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종이 규격의 국제표준은 독일공업규격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입니다.

이는 종이의 재단 방식으로, 종이의 생산 뿐 아니라 인쇄기와 복사기의 생산과 유통,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작성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



<한국산업규격(KS)에서 정하고 있는 용이의 크기>(mm)

A열			B열				
A ₀	841 × 1189	A ₆	105 × 148	B ₀	1030 × 1458	B ₆	128 × 182
A ₁	594 × 841	A ₇	74 × 105	B ₁	728 × 1030	B ₇	91 × 128
A ₂	420 × 594	A ₈	52 × 74	B ₂	515 × 728	B ₈	64 × 91
A ₃	297 × 420	A ₉	37 × 52	B ₃	364 × 515	B ₉	45 × 64
A ₄	210 × 297	A ₁₀	26 × 37	B ₄	257 × 364	B ₁₀	32 × 45
A ₅	148 × 210			B ₅	182 × 257		